김 태 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매년 3월 8일은 세계여성의 날입니다. 매년 세계여성의 날과 여성주간이 되면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성평등지수의 순위입니다. 우리나라의 남녀평등지수는 세계 155개국 중에서 25위(2009년)로 지난 2005년에 144개국 중에서 27위에 머문 것보다 2.7% 이상 다소 상승하였습니다. 여성권한척도(GEM) 또한 109개국 중에서 61위(2009년)로 2005년(80개국 중에서)에 59위보다 17.8%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성평등지수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서 매우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성평등지수는 경제성장속도나 국격에 비하면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으며, 우리 연구원은 성불평등지수의 개선을 위한 정책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의 여성·가족정책의 주요 국내이슈로서는 저출산, 일·가족양립, 다문화가족, 베이붐세대, 아동·여성 성폭력문제 등이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유엔기구인 '유엔여성(UN Women)' 의 공식출범과 앞으로의 기능과 역할이 어떻게 정립되느냐 입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과 이슈화된 사안들을 연구하고 관련된 사업들을 개발하기 위하여 2011년에 '고령임산부의 임신결과 및 정책지원방안', '유연근무제와 가족생활의 변화', '가족의 미래와 여성·가족정책 전망', '여성가족패널조사', '다문화사회 정책의 성과와 미래', '여아와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방안', '사회서비스분야의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여성·가족정책관련 연구과제를 수행할 것이며, 국제적으로는 '공적개발원조를 통한 빈곤퇴치와 양성평등 증진방안', '아태지역 양성평등정책 인프라 강화 사업' 등을 전개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국가정책사업인 성별영향평가사업, 성인지예산제도사업, 성 인지 통계정보 구축사업,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전문가들과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동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여성정책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성별영향평가나 성인지예산제도, 성 인지 통계정보는 국민들에게 아직까지도 많이 생소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우리원의 계간지인 「젠더리뷰」를 통하여 왜 이러한 제도들이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 확산되고 있는지,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를 돕고,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계간지인 「젠더리뷰」를 통하여 국내외에서 여성·가족정책으로 다루지고 있거나 다루어야할 정책들을 소개하고, 연구한 결과들과 여성·가족관련 정보들을 많은 독자들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독자여러분들의 투고와 제보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